LG화학-베트남 PS 합작 "난항"

제2공장 합작서 LG 배제 … 합작조건·원료공급 이견?

LG화학과 베트남 Danang Chemical이 추진하고 있는 PS 합작투자가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과 베트남 Vinachem의 자회사 Danang Chemical은 60대40으로 합작, 베트남 Danang에 연산 3만톤 규모의 PS공장을 건설, 98년 상반기 가동에 들어가기로 하고 곧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G화학은 계약이 체결된 후 건설공사에 들어갈 계획인데, 원료는 LG화학이 공급하고 생산제품은 대부분 베트남에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베트남과 LG화학은 몇가지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LG화학의 베트남 PS 투자가 순조로울지 의문시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내 PS 생산능력을 5만~6만톤으로 계획, LG화학과 합작으로 3만톤 공장을 건설키로 하는 한편 제2의 PS공장 건설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제2의 PS공장 건설계획을 입안, Danang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능력을 3만톤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제1공장 합작파트너인 LG화학을 합작 대상에서 배제키로 결정, 한국의 PS 생산기업을 비롯 일본기업 등 7개 외국기업들과 합작투자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가 LG화학을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합작조건 및 판매방법, 내수 공급문제 등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PS원료 도입과 관련, 도입가격 등 도입조건문제로 LG화학과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다.
베트남은 201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PS는 이 육성계획 중의 한 부분이다.

<화학저널 1996/10/28>